

보도자료 2021-12-21

# ANDY WARHOL

2021.12.10 – 2022.01.28

THE  
PAGE  
GALLERY

# THE PAGE PRESS GALLERY RELEASE

---

## CONTACT

이은주 디렉터 eunju@thepage-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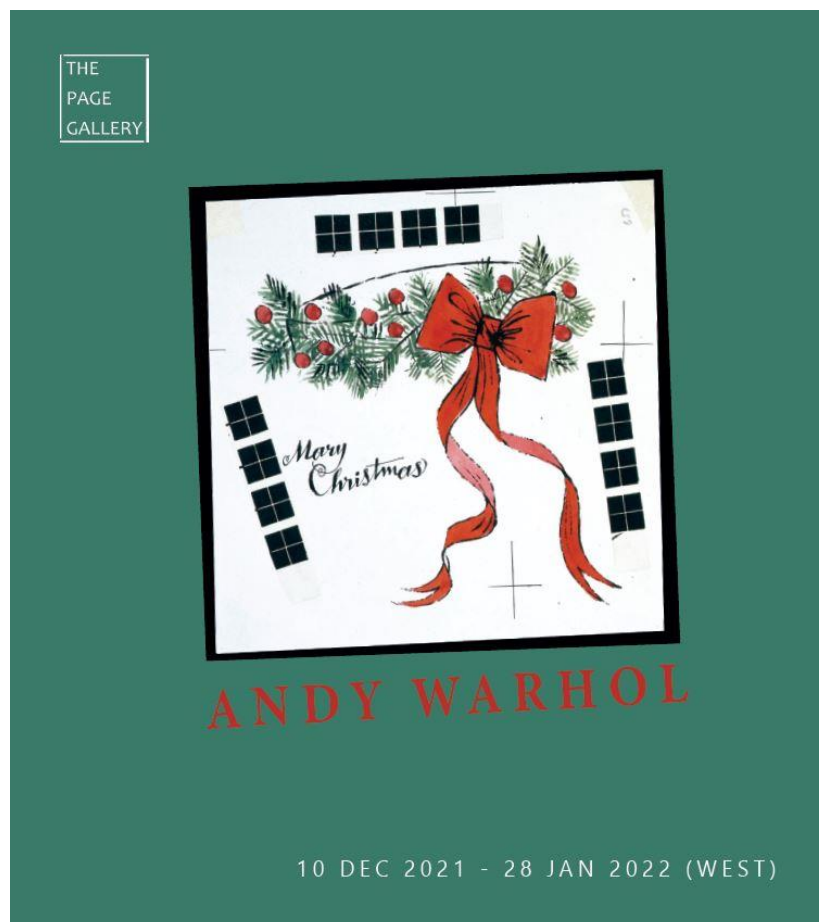
이소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info@thepage-gallery.com

\*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 2021.12.10 – 2022.01.28 ]

# ANDY WARHOL

'팝의 황제'로 불리는 앤디 워홀은 미국의 예술가로, 1960년대에 번성했던 예술적 표현과 광고 및 대중문화의 관계를 탐구하며 회화, 실크스크린, 사진, 영화, 조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펼쳐냈다. 1987년 때아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워홀은 뉴욕 미술계의 중심인물이자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와 같은 예술가들의 멘토였다.

이번 전시에서 더페이지갤러리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현대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하나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된 앤디 워홀의 초기 작품에 집중하여, 후일 그가 얻을 명성의 전조를 살펴본다. 워홀의 매혹적인 드로잉은 그가 정립한 예술철학의 출발점이자 이후 기념비적인 작품을 탄생시킨 탄탄한 기반이었다.

가볍고 환상적인 'Blotted line 블로티드 라인 드로잉'은 워홀이 대학 시절 개발한 기법이다. 잉크가 흡수되지 않는 종이에 펜으로 이미지 외곽선을 따고 그 위에 깨끗한 종이를 덮어 얻은 형태를 각각 다양하게 채색하여 워홀 특유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난 드로잉을 완성했다. 기본적인 판화 형식을 활용한 이 단순한 방법으로 워홀은 삽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패션 브랜드와 유명 잡지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후일 그가 다룰 화려한 주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 '마스터 드로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비슷한 주제를 따라 여러 일러스트를 만들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색상 또는 구성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었다. 이는 워홀이 평생 사로잡혀 있던 '반복'과 '대량생산'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가능성 탐구의 시작이었다.

어린 시절 잡지, 유명인사, 할리우드에 빠져 있던 소년은 시간이 흘러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세기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창조했으며 전 세계 현대미술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워홀의 작품은 더페이지갤러리 WEST관에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는 네이버 예매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 앤디 워홀 [ American, 1928 -1987 ]

앤디 워홀은 1960년대 미국 팝아트 운동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동시에 사업가였다. 워홀은 1950년대 상업 삽화가로서 초기 경력으로 예술 사업을 뒷받침할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1960년부터 팝아트로 관심을 돌려 실험했던 기법들과 상업 광고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일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만들었다.

유명인사, 소비자 문화, 그리고 기계적인 복제에 사로잡힌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창조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전후 소비문화가 부상하던 시기에 성장해 조수들과 함께 스튜디오공정, 조립 라인의 이점을 깨달은 워홀은 상업적이고 기업가적인 노력에 아방가르드한 언더그라운드 작업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췄다. 그의 기계화된 복제 방법과 상업 기술은 예술 제작의 완전한 혁신을 가져왔다. 1970년대 워홀과 더 팩토리는 뉴욕 사교계의 중심이 되었고, 음악, 영화 스타로부터 수백 개의 초상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출판, 영화, 음악 제작, 텔레비전, 패션, 연극 등 새로운 미디어를 실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였고 예술가 및 브랜드와 적극 협력했다. 그의 작품은 휘트니 미국미술관,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센터 폰피두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경매에서 1억 달러 이상에 낙찰되었다. 앤디 워홀은 주변의 것을 문화적 아이콘으로, 평범한 대중소비사회를 예술로 격상시키며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가 죽은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현대 예술과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다.

*“ If you want to know all about Andy Warhol, just look at the surface of my paintings and films and me, and there I am. There's nothing behind it. ”*

- ANDY WARHOL, 1966

앤디 워홀에 대해 다 알고 싶다면 제 그림, 영화, 그리고 저를 보면 됩니다.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Cleopatra W/registration**, circa 1958, Ink and Dr. Martin's Aniline Dye on Strathmore paper, 21 x 14.6 cm

워홀은 1950년대에 뉴욕 타임스, 보그, 하퍼스 바자, 티파니앤코, 아이 밀러 슈즈, 컬럼비아 레코드 등 유명 고객들과 일하며 인기 있는 상업 일러스트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모자들 Hats' 시리즈와 같은 워홀의 패션 일러스트는 블로티드 라인과 생생한 색채로 기발하고 장난기가 넘친다. 그의 친구들로 구성된 '컬러링 파티 coloring parties' 와 함께 채색하여 작품에 독창성을 더했는데, 이는 1960년대 워홀의 전설적인 스튜디오, '더 팩토리 The Factory' 에서 조수들과 상업화된 대량생산 제작 방식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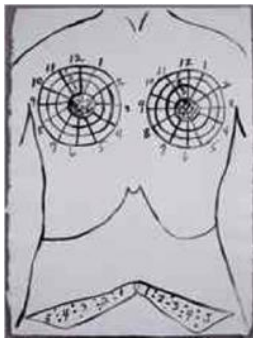
**Shoe fly Babz**, circa 1955, Letterpress illustration on paper hand-colored with watercolor, 24.8 x 34.9 cm

워홀이 처음 뉴욕으로 이주한 1949년 글래머 패션 매거진 아트 에디터 티나 프레데릭스는 그의 그림 중 하나를 구입해 신발 일러스트 시리즈를 의뢰했다. 그리고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워홀은 신발 제조업체 I.Miller 의 삽화가로 뉴욕 타임즈에 실릴 광고를 위해 매주 광고용 신발을 그렸다. 보통 옆모습으로 묘사되는 높은 굽의 신발은 워홀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로,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묘사되었다. 초기 신발 드로잉에는 그의 어머니 줄리아 워홀라가 쓴 재치 있는 캡션이 종종 함께 그려졌으며, 이후 워홀의 특징인 실크스크린 프린트 스타일로도 등장하게 되었다.



**Seated Male**, circa 1959, Black ballpoint on manila paper, 42.5 x 35.2 cm

여러 커미션을 받아 제작한 삽화 외에 1950년대 워홀의 스케치북은 남성 신체 연구로 채워졌다. 당시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었지만 워홀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며 그가 매료된 남성 신체를 사랑스럽게 그렸다. 198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받아들여졌고, 워홀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작업을 확장시켰다.



**Physiological Diagram**, 1985 -86, Synthetic polymer paint on HMP paper, 80 x 59.7 cm

생리학적 다이어그램은 1960년대 말 총상을 맞은 후 제작한 시리즈로, 특정한 대상을 드러내지 않으며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인간 신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초상화이다. 일반적인 해부학 서적에서 볼 법한 그림과 닮도록 단순화되어 있는데, 몸통 위의 나선형은 그의 복부에 있는 흉터를 나타내며, 이를 하나로 묶어 표적으로 보이게 한다. 항상 자신이 다루는 사물과 사람의 물리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담아 표현했지만 이 시리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가 노화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 ARTWORKS

# ANDY WARHOL



**Self-Portrait**, 1967, Silkscreen ink on paper, 64.8 x 54 cm

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는 미국 사회 속 연예인의 피상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재현한 유명인들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이다. 그는 자신도 브랜드로서 강력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 문화적 아이콘의 입지를 다졌다. 워홀은 다양한 자화상에서 과장, 변신, 변장을 통해 이미지들이 실제 얼굴의 캐리커처가 되도록 하며 페르소나와 변주의 귀재로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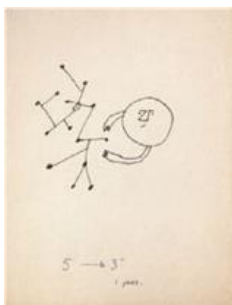
**Piglet (from Wild Raspberries)**, 1958-1959, Offset lithograph with hand color, 43.2 x 54.9 cm

<Wild Raspberries> 책에 실린 그림이다. 이 책은 앤디 워홀이 1950년대에 자가출판한 6권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며, 가장 크고, 화려한 책이다. 인테리어 장식가이자 사교계 명사였던 수지 프랑크포트(Suzie Frankfort)가 글을 쓰고, 앤디 워홀이 일러스트를 그렸으며 워홀의 어머니인 줄리아 워홀라(Julia Warhola)가 글씨를 썼다. <Wild Raspberries>는 1950년대에 유행하던 프랑스 요리책을 패러디하여 유쾌하게 풀어낸 레시피 책이다. 총 18개의 오프셋 석판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15개는 워홀과 그의 친구들이 닥터마틴 사의 수채 잉크를 사용하여 손수 채색한 것이다. 이 작품은 워홀의 초기 작업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모두가 예술가이자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Flowers**, 1978, Silkscreen ink on paper, 114.3 x 88.9 cm

가장 성공한 그의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꽃 시리즈는 1964년 사진 잡지에서 히비스커스 꽃 사진을 편집해 실크스크린으로 떠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꽃의 형상을 풍성한 덩불 배경에 놓고 환각적 패턴으로 변신시켰는데, 그 결과 꽃 시리즈는 그의 다양한 모티브 중 가장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워홀은 대량 인쇄술의 힘을 빌어 탄생한 그의 꽃이 단순하고 밝아 팝아트의 낙관주의가 빛나는 소재라고 보았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소비재도, 유명인도 아닌 제목도 그저 'Flowers' 인 그의 꽃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상업문화와 익명성을 나타낸다. 예술에서 끊임없이 다뤄온 주제였지만 워홀은 주제를 영리하게 다루며 20세기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Untitled**, circa 1952, Ink on paper, 27.9 x 21.6 cm

워홀의 초기 드로잉은 사랑스러울 정도로 단순하다. 이 무제의 색도 없고 음영도 없는 낙서같은 드로잉은 50년대에 그렸던 수백개의 볼펜 그림 중 하나이다. 생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 드로잉들은 주로 잡지에서 발췌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워홀의 후기 작품과는 달리 사소한 것들을 소박하게 그린 드로잉은 젊은 예술가였던 시절 펜과 종이만으로 주변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ANDY WARHOL

## EXHIBITION

2021. 12. 10 – 2022. 01. 28

## CONTACT

02-3447-0049

[www.thepage-gallery.com](http://www.thepage-gallery.com)